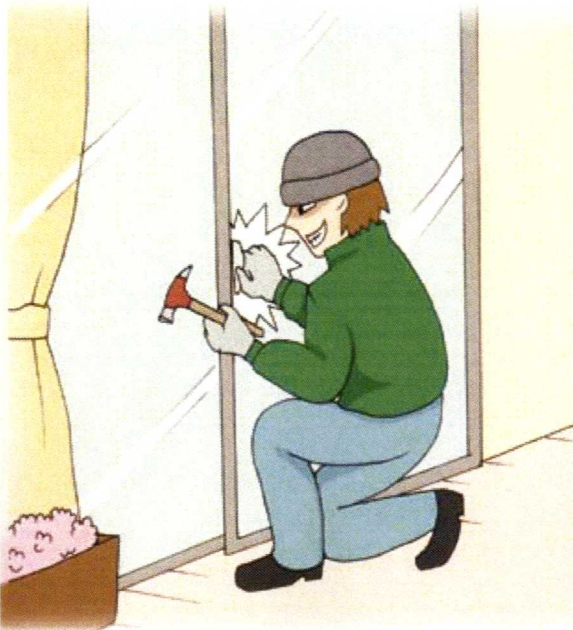


빈집털이 및 야간주거침입 절도

주거를 노린 침입범죄에는.....



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주요대책

- 현관, 뒷문 등의 출입구는 방범성능이 뛰어난 자물쇠로 교환하고 보조자물쇠도 설치한다(원 도어, 투 록).
- 아마도(雨戸), 셔터를 활용하며 창에는 방범창이나 보조자물쇠를 달고, 유리창에 방범필름을 붙이거나 유리를 이중접합유리 등 방범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.
- 침입시 발을 디딜 수 있는 물건은 치워두고 높은 창에도 자물쇠를 단단히 잠근다.
- 방범용 센서등, 알람 센서 등을 설치한다.
- 정원수 등 범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(사각을 만들지 않는다).
-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, 주변사람들(아파트 등은 관리인)에게 말을 해두거나 신문이나 우편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아파트 등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물쇠를 새로 바꾼다.
- 경비회사에 기계경비를 의뢰한다.

피해를 최소화하려면

- 가급적 집안에 많은 현금을 두지 않는다.
- 통장과 인감을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.
- 방범경보기 등을 가까운 곳에 갖추어둔다.

수상한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경계

- 범인은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살핀다.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는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상, 복장 등의 특징과 타고 온 차량번호 등을 기억하여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


범행에 직면하면.....

- 자고 있을 때 침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았을 때는 수선을 피우지 않는다.
- 수상한 소리를 들은 경우에는 부주의하게 접근하지 않는다.
- 침입자(범인)가 눈치채지 못하도록, 또한 틈을 봐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- 귀가 후 집안 상황이 수상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곧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웃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


피해 후의 대응

-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-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도난당한 경우에는, 악용되지 않도록 즉시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회사 등에 연락하여 도난신고를 한다.
- 깨진 창 등은 가급적 빨리 수리하여 보강한다(2차피해 방지).



CP마크

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에는 'CP마크'가 사용됩니다.

노상강도

범인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!!



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범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

- 고가의 물건을 남의 눈에 띄게 소지하지 않는다.
- 통행이 적은 장소를 피한다.
- 심야에는 택시 등을 이용하고, 어두운 밤길을 걷지 않는다.

현금 소지에 주의한다

- 불필요한 현금은 소지하지 않거나, 여러 곳에 나누어 소지한다.
- 남 앞에서 지갑을 꺼낼 때 지갑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.
- 은행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주변을 경계한다. 또한 일정한 날에 인출할 경우 시간과 다니는 길을 바꾼다.

방범용품을 휴대한다

- 방범경보기 등을 휴대한다(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법을 연습해둔다).



범행에 직면하면

- 무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.
- 흉기를 가진 범인과는 거리를 두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한다.
- 틈을 타서 통행이 많고 밝은 곳으로 도망친다.
-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나 방범경보기 등을 활용한다.
- 범인 몰래 휴대전화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- 범인의 얼굴 및 복장 등의 특징과 범인의 사용차량번호 등을 기억하여 경찰에 알린다.
- 가능하면 범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다.



피해 후의 대응

- 범인이 도주하면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- 부상을 당하여 진찰치료를 받을 경우 가급적 사전에 경찰에 연락한다.
- 수사상,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취득한다(진단서 발급료의 공비부담제도가 있음).

